

통일 칼럼

무인기 도발 사태의 진실

북한이 최근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도발을 했다고 주장하며 파장을 일으켰다. 우리 군은 무인기를 보낸 사실이 없고, 그 종류의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여정이 나서 군이 했던 민간이 했던 한국 책임이라고 소아 불었다. 일각에선 이번 무인기 사태가 남북 간 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지만, 김여정은 이 또한 거친 언어로 비난했다.

북한이 최근, 개성시 개풍 구역에서 격추한 한국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에는 중국산 부품들과 함께 살성 로고와 적힌 메모리 카드가 보인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한국이 지난 4일 뿐 아니라 지난해 9월에도 북측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북한군은 격추한 무인기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일에는 인천 강화군에서, 지난해 9월에는 경기도 파주에서 각각 이륙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사진 6장도 함께 공개했다.



정복규
논설위원

북한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발생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거론하며, 현 정부를 비난했다. 우리 국방부는 해당 일자와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고,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도 우리 군의 보유기종이 아니라고 밝혔다.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며 남북이 합동 조사를 하자는 제안도 우회적으로 제시했다. 김 부부장은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했다는 그 자체라며 무인기를 보낸 게 군부냐, 민간이냐는 사태의 본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한 뒤, 군·경은 합동조사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강화도와 파주는 전방지역으로, 북한 주장이 맞다면 CCTV에 자료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는 중국산 민간 무인기, '스카이워커 타이탄' 기종으로 추정된다. 이 제품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20만 원대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데, 기체 표면을 파란색으로 도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거의 유사한 무인기가 지난해 11월 경기도 여주에서도

추락해 발견된 적이 있다. 당시 군·경이 합동 조사를 벌였는데, 무인항공기를 연구하는 대학원생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지난 2023년엔 국내 드론 동호회가 날린 무인기가 강원도에서 출발해 북한 금강산까지 약 2시간을 비행한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기도 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첫 번째 납북 무인기 포착 시점은 4개월 전인 지난해 9월이다. 그런데 당시에는 입장을 내지 않다가 두 번째 무인기가 지난 4일 포착된 이후 뒤늦게서야 이를 공개하고 한국을 비난했다.

게다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에 관련 내용을 모두 실었다.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북한이, 대남 적 개성을 고취하고 남북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는 점을 내부에 명확히 각인시키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온다.

김여정은 한국이 민간단체의 소행으로 발뺌하려 한다면 자신들도 '민간'을 내세워 과거 '오물 풍선 사태'와 같은 보복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위협했다.

독자제언

겨울철 도로 위의 가장 큰 복병은 단연 '블랙아이스'이다. 블랙아이스는 도로 표면에 얇게 얼어붙은 얼음층으로 결빙기에는 마른 아스팔트처럼 보여 운전자들이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주행하다가 미끄러지는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특히 다리 위, 터널 출입구, 그늘진 구간, 새벽과 야간 시간대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블랙아이스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평소보다 감속하지 않거나 급제동, 급가속, 급핸들 조작을

'블랙아이스'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비

할 경우 차량이 통제력을 잃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영덕 고속도로에서 대형 화물차가 블랙아이스로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뚫고 아래로 추락,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으며, 맞은편 도로에서도 여러 차량이 연쇄 추돌, 특히 승용차에서 탑승자 4명이 사망한 인태

까운 사례가 발생했다.

본격적으로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 인한 빙판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블랙아이스 구간에서 속도를 높일 시 사고위험은 배가 되기 때문에 과속과 급출발, 급브레이크에 주의하며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 채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타이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한 번에 밟기보다 두세 번 나눠 밟는 것이 좋고, 차가 미끄러지면 엔진브레이크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내리막길이나 커브길에서는 미리 감속하고, 결빙구간에서는 만약 타이어가 미끄러지면 핸들을 차가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돌려 차가 회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보이지 않는 위험은 작은 부주의에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신서윤 교정경찰서 흥덕파출소경위

재해·재난은 자연의 영역이지만, 그로 인한 피해의 크기는 사회의 준비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경찰관으로서 현장을 경험하며 느낀 점은 분명하다. 재난 대응의 성패는 발생 이후가 아니라, 발생 이전에 이미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경찰의 재난 대응은 흔히 사고 이후의 통제와 수습으로만 인식된다. 그러나 실제로 경찰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영역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예방과 선제적 조치다. 위험 지역 사전 점검, 반복되는 민원 구간 관리, 재난 취약 시간대 순찰, 그리고 주민 대상 안내와 홍보가 그것이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예보가 있을 때,

재난, 막을 수 없으나 피해는 줄일 수 있다

경찰은 통제선 설치 시점을 두고 늘 고민한다. 너무 이르르면 불편을 초래하고, 늦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얻은 교훈은 분명하다. 재난 상황에서는 '과하다'고 느껴질 만큼 이른 대응이 오히려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점이다.

선제적 통제와 대피 유도는 종종 시민의 반발을 동반한다. "아직 괜찮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는 말이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재난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경찰의 역할은 위험을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최악의 상황을 기운으

로 판단하고 설명하는 데 있다. 이는 권한 행사가 아니라 책임있는 예방 조치이다.

재난 예방은 기관 간 협력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 경찰은 지자체와 소방, 유관 기관과 함께 위험 정보를 공유하고, 통제와 대응 계획을 사전에 점검한다. 실제로 유관기관과 재난안정통신망(PS-LTE)을 이용하여 수시 소통체계를 구축하며 비상시 상황을 전파하는 것이 예방과 선제적 대응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예방은 제도와 장비만으로 이루어지

지 않는다. 시민의 이해와 참여가 함께할 때 비로소 효과를 발휘한다. 통제선 준수, 대피 안내 협조, 재난 문자에 대한 관심은 경찰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안전이다. 경찰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재난 대응을 '통제'가 아닌 '공동의 준비'로 만들어가야 한다.

재난은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는 분명히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현장에서 묵묵히 이루어지는 예방과 선제적 대응이다. 재난 앞에서 가장 강한 대응은 빠른 출동이 아니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움직이는 것이다. 그것이 재난을 대하는 가장 분별적인 자세라고 믿는다.

이도형순청경찰서 경비정보반과소경

사설

'케데헌' 미국 골든글로브 2관왕

한국계 메가 감독이 제작한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골든글로브 어워즈'에서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받아 2관왕에 올랐다.

로스앤젤레스(LA) 열린 제83회 골든글로브 어워즈에서 케데헌은 '주토피아 2', '귀멸의 칼날: 무한 성편' 등을 제치고 최우수 애니메이션 영화(Best Motion Picture - Animated) 부문상을 받았다.

케데헌은 사운드트랙 '골든'도 최우수 주제가상(Best Original Song - Motion Picture)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주제가상 경쟁작은 '아바타: 물과 재', '제너스: 죄인들', '위키드 포 굿', '트레인 드립스' 등이었는데, 케데헌이 유력한 수상작으로 꼽혀왔다.

가수이자 작곡가 이재는 "이

돌'이라는 한 가지 꿈을 이루기 위해 10년 동안 쉬지 않고 노력했지만, 거절당하고 실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케데헌은 박스오피스 흥행상(Cinematic and Box Office Achievement) 부문 후보로도 올랐지만, 이 부문 상은 '제너스: 죄인들'에게 돌아갔다.

이번 골든글로브 어워즈에는 박찬욱 감독의 '여쩔수없다'가 뮤지컬·코미디 영화 부문 작품상과 남우주연상(이병헌), 외국어(Nor-English Language)영화상 등 3개 부문 후보로 올랐지만, 남우주연상과 외국어영화상 수상은 불발됐다.

영화와 TV 부문을 나눠 시상하는 골든글로브 어워즈는 1944년부터 개최된 할리우드의 주요 시상식 중 하나다.

초등 입학 달라진 정책

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입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다를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만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해, 만 13세 미만까지 늘릴 계획이다. 우선 올해부터는 지급 대상이 만 9세까지 확대됐다.

지역별 추가 지원도 마련됐다. 비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기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에 5000원에서 최대 2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다만 이 추가 지원은 2026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초등학교 입학 이후 자녀의 등교를 챙기느라 출근 시간에 부담을

느끼는 부모도 적지 않다.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는 올해부터 오전 10시까지 1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제도 이용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사전 동의를 필요한다. 새해부터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만 9세 미만)의 예체능 확충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비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한부모 가정과 조손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기존 밤 8시까지 운영되던 '야간 연장돌봄사업'이 전국 360개 방과후 돌봄시설에서 최대 밤 12시까지 확대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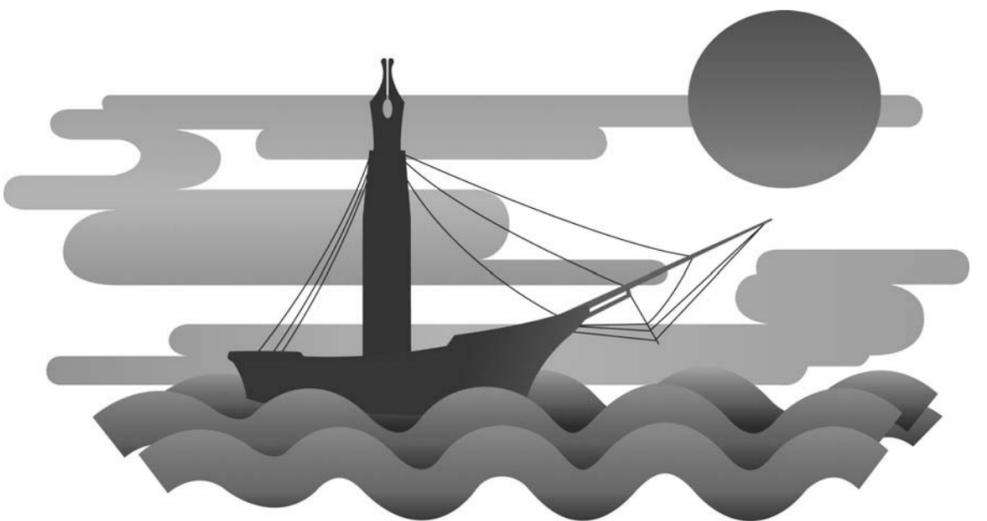
사내·외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